

한·EU FTA 발효 한 달,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효과

(2011.08.02)

[목차]

1. EU 현지에서 본 FTA효과	1
2.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사례	3
3. 현안 과제	5
<첨부자료>	6

작성 : 구미팀 염기혁 대리(ykh@kotra.or.kr)

감수 : 지역조사처 윤재천 처장(jay@kotra.or.kr)

2011.7월 對EU 수출동향 요약

- 수혜품목 중심으로 FTA 효과가 조기 가시화 중
 - 한-EU FTA 발효 후 7월 對EU 수출은 40.8억불로 전년 대비 12% 감소했으나, 선박 제외 시 수출은 실제 15% 증가
 - * 선박은 수주 규모가 크고 월중 통관여부에 따라 수출액 등락이 큼
 - 평판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품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수혜품목의 대폭 수출확대 효과로 선박을 제외한 수출액은 전년대비 증가 시현

1. EU 현지에서 본 FTA 효과

□ (FTA 효과) 발효초기지만 여러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 관심 증가

- 자동차 부품, 섬유, CCTV, TV 송신기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어들의 한국산에 대한 관심 증가
 - 자동차 부품, 합성섬유 등 FTA발효 이후 한국산 수입확대 및 중국, 인도 등에서 한국으로 수입선을 변경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시현
 - * 현재 연간 약 3,000만불의 한국산을 수입하는 덴마크의 SBS A/S社는 FTA 발효 이후 30~40% 수입확대 추진 중
 - ** 스페인의 폴리에스터 원단 수입업체인 Jose Ferrandez社는 중국산 유입으로 중단했던 한국산 수입을 재개, 향후 50만유로까지 확대 계획

□ (바이어 관심) 일부 바이어는 오래전부터 한-EU FTA 활용 대비

- 한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일부 EU 바이어는 FTA에 미리 대비
 - 현지 무역관을 통해 FTA 진행사항을 문의하거나 FTA 발효 전인 2011년 상반기에 이미 한국산에 대한 샘플오더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

* 스웨덴의 Gotlands Gummifabrik社는 기존 중국 거래선을 한국으로 변경하고 FTA 발효전인 2011.4월 Valve Seal 및 Gasket 약 1 만 불 분량을 오더

□ (현지 진출기업) FTA에도 수출가격 변화가 미미한 사례도 존재

- 제 3국 생산, 고급화 전략으로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FTA를 통한 수출확대 기대 낮음

2.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사례

국가	품목	주요 사례
독일	자동차 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 내장재를 설계 제작하는 A社는 지난 4년 여간 독일 시장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해 여러 경로로 독일기업 접촉을 시도 했으나 실패 ○ FTA가 발효된 7월 이후에는 접촉한 10개사 중 9개사가 A사 제품 소개를 희망, A사는 이중 4개사로부터 도면 및 RFQ(견적요청서)를 접수한 상황으로 FTA 효과를 톡톡히 실감 중
	코트 블레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OTRA 지사화기업 B社는 뮌헨 무역관과 협의하여 독일 바이어 주문을 FTA발효이후로 연기하여 인하된 관세만큼 수출물량 확대(전년 동기 400% 증가)
	자동차 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 부품 회사인 Getrag社는 한-EU FTA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FTA 추진과정 및 관세철폐 내용 등을 사전 검토 ○ 우리기업 3개사와 거래진행 중으로 FTA를 활용해 수입 관세 3%를 절감, 한국산 구매를 확대할 예정
	LED 조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J.Kuff사는 중국, 대만에서 수입하던 LED 조명을 한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업체와 접촉 중 ○ LED 조명은 2.7~4.7%의 현행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으로 EU 에너지 절감 정책에 발맞춰 수요 급증 예상

영국	CCTV/ 보안 카메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CTV/보안카메라 수입업체인 Videcon社는 한국산 모델을 추가하여 신규 제품 라인업 구성 ○ 7월 중 월별 한국산 수입규모가 기존 10만 불에서 15만 불 규모로 증가
	밸브 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renstar사는 인도기업 Intervolve로부터 수입하던 Al/Bronze Butterfly Valve 물량의 50%를 한국산으로 전환 ○ 약 6만 7,000파운드 물량을 발주하고, 향후 제품의 가능성을 감안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
스페인	소비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페인 최대 백화점 그룹으로 현재 연간 5,000만 불의 한국산을 구입하고 있는 El Corte Ingles는 한-EU FTA를 계기로 제품 다양화를 위해 한국의 신규 거래선 발굴을 추진 ○ 한국산 구매 확대를 위해 패션소품, 의류, 완구 등 10대 관심 품목군을 선정하고, 향후 구매 확대를 검토 중
	산업용 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Jose Ferrandez社는 2000년~2006년, 연간 약 150만불 규모의 한국산 폴리에스터 원단을 수입했으나, 값싼 중국산의 유입으로 한국산 수입을 중단 ○ 이번 FTA 발효를 계기로 수입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고, 7월 중 약 5만 유로상당의 계약을 체결 ○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연간 약 50만유로 물량까지 수입 확대 전망
덴마크	자동차 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BS A/S社는 한국으로부터 연간 약 3,000만불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 중이나 그간 가격부담으로 인해 부득이 수입량을 조절 중 ○ FTA 발효로 약 300만불 이상의 구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, 한국산 수입을 약 30~40% 확대 추진 중
핀란드	TV 송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emac Oyt社는 저가 중국산의 유입으로 중단했던 한국산 TV 송신기(DVR, STB 등) 수입을 다시 재개할 예정
스웨덴	자동차 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otlands Gummifabrik社는 한-EU FTA 활용을 위해 기존 중국 거래선을 우리 기업으로 변경 모색 중 ○ 2011년 4월 스톡홀름 무역관을 통해 (주)새한포리머

		<p>로부터 Valve Seal 및 가스켓 1차 오더(1만불 규모), 하반기 물량도 추가 오더 추진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진행되는 품목 외에도 Dental Silicone, Bushing 등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 추진 중
헝가리	ESD 장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unzl社는 중국의 일반 목장갑과 한국의 ESD 장갑을 50:50 비중으로 수입하고 있었으나 시장수요 감소와 저가제품 선호현상으로 인해 한국산 수입 중단 ○ FTA 발효 후 Bunzl社는 가격경쟁력을 회복한 한국산 수입을 재개하여, 우리기업 으로부터 약 8만불 규모의 샘플 오더를 계약 ○ Bunzl社는 컨테이너 단위로(약 2백만불) 주문량을 늘려갈 예정이며, 시장 상황에 따라 중국산 수입 물량을 전량 한국제품으로 교체 추진 검토 중
불가리아	인조 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Vega Textil社는 그동안 Polyester Fabric과 Textile을 그리스로부터 수입하였으나 한-EU FTA 발효이후 한국산 수입을 추진 중 ○ 수입선 전환 시 연간 기준으로 100톤, 약 21만불 이상의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
3. 현안 과제

□ (FTA 홍보) 바이어 대상 한-EU FTA 적극 홍보 필요

- 한-EU FTA 발효 후 관세 철폐 및 그 부수 효과에 힘입어 한국산의 상승한 비교우위를 적극 홍보
 - 우리기업과 신규 접촉하는 일부 바이어는 한-EU FTA 발효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존재
- 일부 기업은 원산지 인증 문제 및 홍보 부진으로 FTA 발효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 한다는 반응

□ (시장선점) FTA 초기 적극적인 시장개척 필요

- EU가 중국, 일본 등 우리 경쟁국들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선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개척 필요
 - 현재 EU는 인도, 싱가포르와 연내 FTA 협상을 끝낼 것으로 보이며, 일본과도 9월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

□ (기타)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필수

- 우리기업은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6,000 유로 이상 EU 수출 시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자격 취득 필수

※첨부 : 2011.7월 對EU 수출 동향/끝/

첨부 : 2011. 7월 對EU 수출 동향

- (총괄) 한-EU FTA 발효 후 7월 對EU 수출은 40.8억불로 전년 대비 12% 감소
 - 수주 규모가 커 월중 통관 여부에 따라 수출액 등락이 큰 선박을 제외 시 수출은 실제 15% 증가
- (주력품목)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이 감소
 - 평판디스플레이(△44%), 무선통신기기(△21%), 반도체(△44%), 선박(△70%) 등 감소

<2011.7월 주요 품목 수출 동향>

구 분 ('11.7월 수출액 상위 순)	수출액(백만불)		증감률(%)
	'10.7월	'11.7월	
자동차	245	451	84
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	1,474	446	△70
석유제품	215	390	81
자동차 부품	252	306	21
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	418	234	△44
무선통신기기	244	193	△21
영상기기	182	175	△4
반도체	304	171	△44
철강판	84	111	32
컴퓨터	85	100	18
기타	1,134	1,506	33
합 계	4,637	4,083	△12

자료원 : 관세청

수출감소 원인

- EU 회원국의 재정위기 확산우려
- 2010년 7월 선박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
- 일부 바이어는 FTA 활용을 위해 주문을 7월 이후로 연기

□ (수혜품목) 한-EU FTA 수혜품목 위주로 수출증가세 시현

- 수혜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대비 28% 증가한 32억불(전체 수출금액의 79%) 수준
-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, 석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84%, 81% 증가
 - FTA 수출활용률은 58.7%로 발효초기임에도 타 FTA와 비교 시 높은 수준
 - * FTA 수출활용률 = 실제 FTA 활용 수출액 / FTA 활용가능 수출액
- 기타 1개 품목을 제외한 수출 상위 10대 전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
 - 우산·양산, 가발·가눈썹 등 중소기업 제품도 증가
 - * 각각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40%, 161% 증가

<FTA 수혜품목 수출 상위 10대 품목>

구 분 (‘11년 7월 수출액상위 순)	수출액(백만불)		증감률(%)	FTA 활용률(%)
	’10.7월	’11.7월		
자동차	245	451	84	99
석유제품	215	390	81	62
자동차부품	252	306	21	79
영상기기	182	175	△4	56
합성수지	72	100	39	84
고무제품	64	80	25	79
철강판	84	111	32	69
플라스틱 제품	46	58	26	70
금속공작기계	17	58	241	62
원동기 및 펌프	48	62	29	56
합 계	1,225	1,791	46	76

자료원 : 관세청

Kotra Executive Brief 11-014

**한·EU FTA 발효 한 달,
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효과**

발행인 | 홍석우
편집인 | 곽동운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1년 8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우 137-749)
전화 | 02) 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